

대한항공 50년사

KOREAN AIR 50 YEARS HISTORY
1969 — 2019

대한항공 50년사

Vol. 2 Visual History 하늘길에 내일을 그리다

KOREAN AIR

KOREAN AIR

Vol. 2 Visual History
하늘길에 내일을 그리다

KOREAN AIR



하늘길에 내일을 그리다

Vol. 2 Visual History



새로운 100년을 향한
희망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항 발전에 기여해온 대한항공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후된 항공기 8대와 일본을 잇는 3개 국제 노선으로 출발했지만 수송보국의 창업정신으로 세계의 하늘길을 활짝 열었고,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태평양 횡단의 꿈을 이뤄낸 이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숏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과 쉽 없는 전진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을 창설해 선진 항공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게 됐으며,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한식을 기내식으로 만들어 우리 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기 제조업에 뛰어들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책임과 봉사라는 소명의식으로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했으며, IATA 연차총회를 주관해 우리나라를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올려놓으면서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6년 연속 화물수송 세계 1위에 올라 글로벌 항공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전 세계 항공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성과를 담아 <대한항공 50년사>를 펴냅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고객의 사랑'과 '국민의 신뢰'라는 두 날개로 세계적인 글로벌 항공사로 나아왔습니다. 대한항공을 '우리의 날개'라 부르며 국가의 긍지와 기쁨으로 여긴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과 신뢰가 오늘의 대한항공을 만든 힘이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누구나 꼭 타고 싶어 하는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대한항공 회장 조원태

KOREAN AIR 50YEARS HISTORY
1969 2019

대한민국 민항 50년,

대한항공 50년사

일러두기

구성

<대한항공 50년사>는 1권 통사, 2권 화보 등 1책 2권으로 구성했다.

2권 화보는 역사화보, 현황화보, 나눔경영 화보,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했다. 역사화보는 역사적 사건 50개를 선정해 '대한항공 50년, 역사적 순간 50'으로 정리했고, 현황화보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위해 깨어 있는 대한항공의 24시간을 촬영해 구성했다. 나눔경영에서는 대한항공의 5개 분야별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화보로 수록했다. 인포그래픽에서는 50년간 주요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표기

회사명과 직급은 해당 시기의 명칭으로 표기했다. 각종 통계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근 통계로 수록했다.

맞춤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랐으며,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와 영문을 혼용했다.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천, 만, 억, 조 등 보조 단위를 사용했다.

006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014 대한항공 50년, 역사적 순간 50

016 1969. 민영 항공사 대한항공의 탄생

018 1969. 최초 국제선 동남아 노선 개설

019 1971. 태평양 횡단 노선 개설

020 1973. 대량 수송 시대를 연 최첨단 항공기 B747 도입

021 1973. 유럽의 관문, 파리 취항

022 1975. 항공운송에서 제조로, 항공우주 사업 진출

023 1976. 중동 노선 개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

024 1979. 세계 항공의 중심, 뉴욕 취항

025 1980. 제2차 오일쇼크와 비상경영

026 1980.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추진

027 1981. 세계 곳곳에 대한항공 전용 화물터미널 건립

028 1982. 국산 전투기 제공호 생산

029 1983. 선진 예약 시스템 도입과 TOPAS 개발

030 1984. 세계의 하늘을 나는 대한의 날개, 태극 마크 제정

031 1984. 제2 도약 선포와 서소문 시대 개막

032 1986. 김해 정비기지 구축으로 현대화된 정비 체제 확립

033 1988. 미주, 유럽 취항 확대

034 1988.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036 1989. 조종사 자체 양성 체계 구축

038 1990.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을 넘어 세계로

039 1993. 대양주와 남미, 아프리카 진출, 5대양 6대주 노선망 완성

040 1991. 창정비에서 민항기 부품 개발까지, 항공우주 사업의 성장

042 1992. '항공 여행의 꽃' 기내식 사업의 성장

044 1995. 보유 항공기 100대 돌파

045 1996. 화물 사업의 고속 성장과 글로벌 화물 노선망 구축

046 1997. 복합 항공기지 탄생과 OC빌딩 이전

048 1999. 조양호 회장 취임과 안전 운항 체제 구축

050 2000. 세계 최초 '고객 중심'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출범

052 2000. 실시간 안전 운항을 위한 통제센터 가동

053 2001. 동북아 물류 허브, 인천국제공항 시대 개막

054 2004. Excellence in Flight,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 도약 선언

056 2004. 국제 항공화물 수송 세계 1위 달성

058 2005. New CI 도입과 신유니폼 론칭

060 2005. 객실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061 2008. 프리미엄 실용 항공사, 진에어 출범

062 2008.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 나보이 프로젝트

063 2008. 글로벌 문화 후원

064 2010. 고객 중심 서비스로 'Service Excellence' 구현

066 2011. 차세대 항공기 A380 도입과 기체 혁신 가속화

068 2012. 세계 항공사상 최초 통합 ERP 시스템 구축

069 2013.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진칼 설립

070 2013.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무인기 개발

072 2015.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항공사

074 2017. LA 랜드마크 월셔그랜드센터 개관

076 201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

078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080 2018.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정

082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대한항공

084 2019.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086 2019. 항공업계의 UN, IATA 연차총회 주관 항공사

088 대한항공 365일 24시간

136 사랑의 날개, 대한항공

138 나눔지기

144 꿈나무지기

148 문화지기

150 환경지기

152 스포츠 후원

156 숫자로 보는 대한항공 50년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낮에도, 밤에도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등
그 모든 별들을 이어줍니다.





166대의 항공기로
전세계 44개국 124개 도시를 이어주는
우리의 날개
너, 나, 우리의 자부심

그 이름은 대한항공입니다.



1969

Korean Air 50 Years 50 Historical Moments

대한항공 50년, 역사적 순간 50

2019

1969. 3. 6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한항공공사 사장 취임식



↑ 1969. 3. 6 정일권 국무총리로부터 대한항공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고 선서하는 조중훈 사장
↓ 1969. 3. 7 민영화로 새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알리는 광고

1969. 민영 항공사 대한항공의 탄생

1969년 3월 1일 민영항공사 대한항공이 탄생했다. 조중훈 사장은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 항공사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권유받고, 고심 끝에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소명'이라는 수송보국의 철학으로 인수한 것이다. 대한항공공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부는 1969년 3월 6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공사 인수식을 개최하고 조중훈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출범시켰다.



1969. 10 홍콩에 착륙 중인 B720 항공기

1969. 최초 국제선 동남아 노선 개설

국제선 확대가 시급해지자 B720 제트기를 도입해 1969년 10월 2일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노선을 개설했다.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과 기술자 수송을 위해 사이공 취항을 서두른 끝에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노선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해 12월에는 서울-홍콩 직항 노선도 부활시켰다. 이후 동남아 노선은 항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홍콩-방콕 노선과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방콕 2개 노선으로 구분해 운항 횟수를 늘려 나갔다.



1972. 4. 19 태평양 횡단 정기 여객편 개설 취항식

1971. 태평양 횡단 노선 개설

민영화 초기부터 세계 최대 항공 시장이던 미주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1971년 4월 26일 서울-도쿄-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태평양 횡단 화물 노선을 개설했다. 1년 뒤 1972년 4월 19일에는 서울-도쿄-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주 2회 정기 여객편을 취항시켰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항공 다음으로 미주에 진출한 것으로, 설립 3년차 신생 항공사가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 1972 대한항공 B747 점보기 1번기 제작 모습(미국 보잉사) ↓ 1973. 5. 16 B747 점보기 1번기 미주 노선 취항식

1973. 대량 수송 시대를 연 최첨단 항공기 B747 도입

차세대 항공기로 각광 받고 있던 점보 제트기 B747 도입에 나섰다. 1970년 5월 검토에 들어가 1973년 5월 1 번기를 도입해 미주 노선에 투입했다. 전 세계 선진 항공사들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 B747 항공기의 과감한 도입 결정과 체계적인 운영 준비로 대량 운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975. 3. 14 서울-파리 직항 여객편 취항식

1973. 유럽의 관문, 파리 취항

미주 노선 개척에 이어 유럽으로 눈길을 돌렸다. 1973년 10월 6일 서울과 파리를 연결하는 화물 노선을 개설했고, 1년 반 뒤인 1975년 3월 14일에는 DC-10 여객기가 파리 오를리공항에 착륙했다. 유럽의 관문이자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파리 여객 노선 취항으로 유럽으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한국과 유럽 간 교역과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했다.



↑ 1970년대 500MD 제작 모습 ↓ 1978 500MD 화력 시범 훈련 시찰

1975. 항공운송에서 제조로, 항공우주 사업 진출

1975년 10월 정부로부터 군용 항공기 정비 및 조립 생산 군수 업체로 지정받았다. 항공기 제조업의 첫 과제는 군용 헬기 조립, 생산이었다. 다각적인 검토 끝에 미국 휴즈사의 500MD 모델로 결정하고 국내 생산에 들어가 1977년 28대를 비롯해 1988년 사업 완료까지 모두 390대를 납품했다. 이후 항공우주 사업을 확대해 헬기 생산뿐만 아니라 전투기에서 항공기 부품과 위성체 그리고 무인기까지 생산하는 항공기 제조 업체로 성장했다.



↑ 1976. 5. 21 중동을 잇는 서울-바레인 정기 여객 노선 취항 ↓ 1977. 4. 1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취항식

1976. 중동 노선 개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중동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 붐이 일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찾던 대한항공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1975년부터 부정기편으로 인력을 수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976년 5월 21일 우리나라와 중동을 잇는 최초의 정기 여객 노선인 서울-바레인 노선을 정식으로 개설했다. 이어 1977년 4월 1일에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정기 노선을 개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1979. 3. 29 'I ♥ NEWYORK'이라는 문구를 새긴 B747 항공기 ↓ 1979. 3. 29 뉴욕 여객 노선 취항 기념식

1979. 세계 항공의 중심, 뉴욕 취항

1979년 3월 23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KE088편 화물기가 16시간의 비행 끝에 앵커리지를 거쳐 뉴욕 케네디 공항에 착륙했다. 화물기 취항 일주일 후인 3월 29일 우리나라 민간항공 사상 최초로 서울-뉴욕 간 정기 여객편을 띄우는 성과도 이뤄냈다. 뉴욕 진출은 세계 민간항공의 중심에 당당히 대한항공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세계 항공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페인트 도장 없이 운영된 B747 화물 전용기

1980. 제2차 오일쇼크와 비상경영

제1차 오일쇼크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전 세계 항공업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 정책 표방과 제2차 오일쇼크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적자 노선을 감편하고 흑자 노선 공급을 증대하는 등 수요에 맞게 사업 규모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층에서부터 일선 사원에 이르기까지 원가 절감을 위한 지혜를 모아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흑자경영의 기반을 구축했다.



1982. 5. 7 알찬 서비스 추진 특별교육

1980.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추진

항공자유화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증가하면서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고객의 항공사 선택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됐다. 대한항공은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서비스 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1980년 '손님에게 기쁨을'이라는 표어를 내건 '서비스 혁신 캠페인 80'을 실시했고,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982년부터 7년에 걸친 '알찬 서비스 추진 운동'도 전개했다.



↑ 1983. 12 뉴욕 존에프케네디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개장 ↓ 1981. 12 LA 전용 화물터미널 개장

1981. 세계 곳곳에 대한항공 전용 화물터미널 건립

증가하는 국제 화물 수요 처리와 미래 성장을 위해 세계 곳곳에 전용 화물터미널 확보에 나섰다. 첫걸음으로 1981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공항에 전용 화물터미널을 설립했다. LA 전용 화물터미널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시설로, 화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화물 사업의 성장 기반이 됐다. 1983년에는 뉴욕 존에프케네디공항에 11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도 확보했다.

1982. 9. 9 전투기 F-5F 제공호 첫 생산



1982. 국산 전투기 제공호 생산

1982년 9월 김해공장에서 첫 국산 전투기인 제공호가 위용을 드러냈다. 제공호 출고는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중간 단계로 끌어올린 청신호였으며,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우리의 항공산업을 단순 정비의 기초 단계에서 완제기 생산 단계로 끌어올린 교두보였다. 제공호 생산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제공호 68대를 제작해 우리 공군에 납품했다.



↑ 1971. 2. 27 IBM S/1130 컴퓨터 도입 ↓ 1983. 1. 17 예약 시스템 TOPAS 운용 개시

1983. 선진 예약 시스템 도입과 TOPAS 개발

1970년부터 추진된 업무 전산화는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TOPAS라는 한국형 시스템의 결실로 이어졌다. 1980년대 초 선진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개발이 확대되자 1983년 대한항공 상황에 최적화된 예약 시스템인 TOPAS(Total Passenger System)를 개발했다. 당시 세계 7개 항공사만이 CRS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TOPAS 구축으로 항공 시스템 분야에서 선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 새로운 태극 마크를 부착한 항공기 외장(1984~)
↓ 1984년 도입된 대한항공의 새로운 CI

1984. 세계의 하늘을 나는 대한의 날개, 태극 마크 제정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처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니 마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태극 마크로 심벌마크를 변경했다. 태극 마크는 항공기 프로펠러가 고속 회전할 때 태극 문양이 나타나는 것을 포착한 조중훈 회장의 아이디어로 적색과 청색을 조화시켜 역동적인 힘과 국적기로서의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심벌마크와 로고, 항공기 외장은 1984년 6월 20일 프랑크푸르트 취항 기념식에서 처음 선보였다.



1984. 제2 도약 선포와 서소문 시대 개막

1984년 2월 24일 제2의 도약을 선포하며 조중훈 회장 경영 체제를 출범시켰다. 새로운 경영 체제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에서 내실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3월 29일에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서소문 사옥으로 이진해 사내 분위기를 일신했다. 서소문 신사옥은 대한항공의 심장부이자 각종 비즈니스 회의 개최지로서 우리나라의 항공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 1986. 8. 22 김해 2 Bay 격납고 준공 ↓ 1987 김해 정비기지 전경

1986. 김해 정비기지 구축으로 현대화된 정비 체제 확립

민영화 이후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자체 정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항공기 보유 대수와 운항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과 장비로는 정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1986년 8월 김해에 정비기지를 구축했다. 대형 격납고(2 Bay Hangar)를 비롯해 전자 공장과 보기공장, 종합 기자재 창고를 건립해 현대화된 정비 체제를 확립했다.



↑ 1988. 9. 1 런던 노선 개설, 서울-유럽 간 매일 운항 ↓ 1988. 11. 2 서울-캐나다 정기 여객 및 화물 노선 취항식

1988. 미주, 유럽 취항 확대

항공 수요 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는 외국 항공사의 서울 취항과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1986년 3월, 뉴욕 직항편 매일 운항으로 세계 항공사상 가장 긴 논스톱 구간을 보유하게 됐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노선 운항 증대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취항으로 이어졌다. 또한 1988년 9월에는 런던 노선을 개설해 서울-유럽 간 매일 운항 체제를 실현하고, 캐나다 첫 취항 노선인 서울-밴쿠버-토론토 노선도 개설해 세계일주 노선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그리스)

1988.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1988년 9월에 열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는 민족적 긍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올림픽 공식 항공사로서 올림픽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 특히 성화 봉송과 올림픽선수단 수송을 통해 인정받은 대한항공의 수송 능력은 항공운송 사업 20년 역사의 총결산이기도 했다.



1988. 8. 27 대한항공 DC-10 특별기로 봉송한 성화 점등식(제주)

1989. 1. 9 기초비행훈련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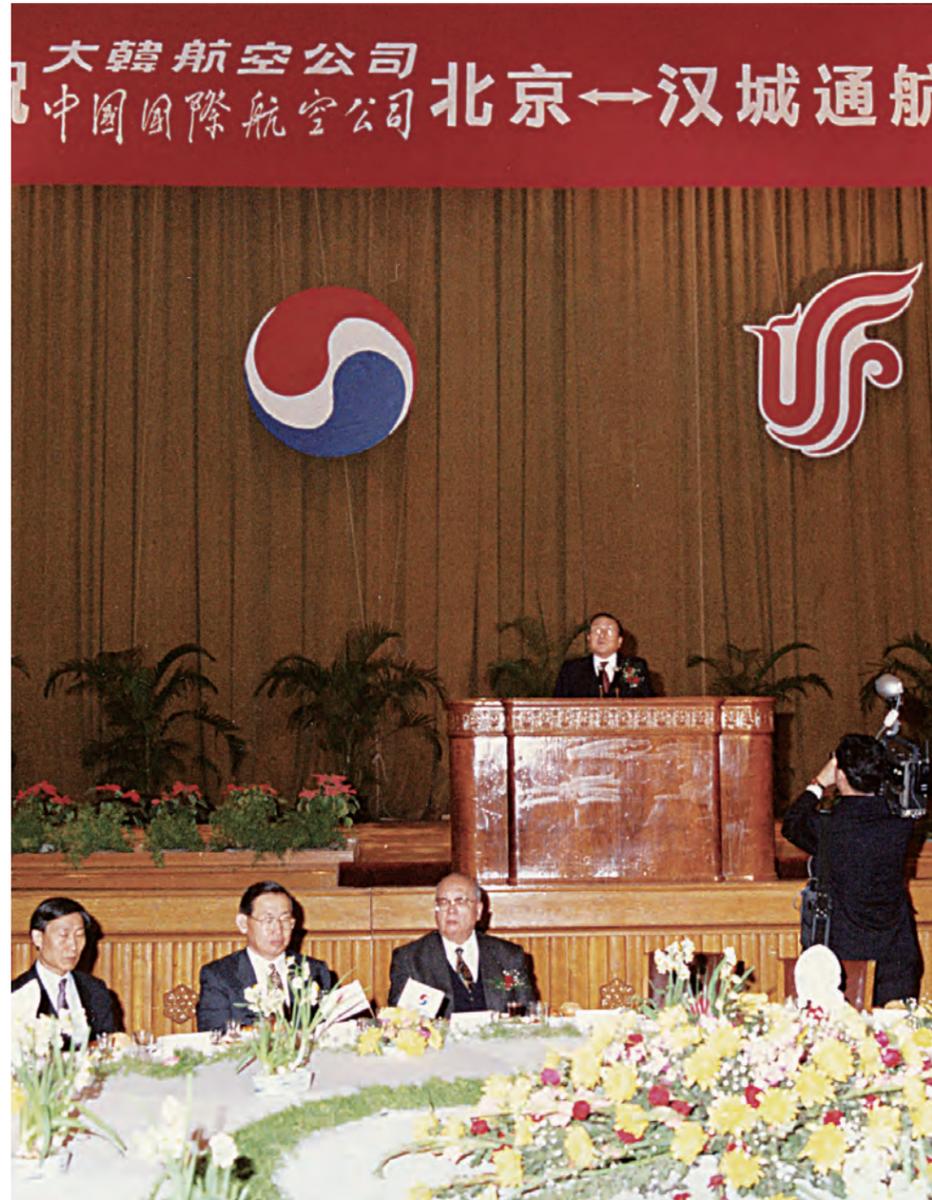


1989. 조종사 자체 양성 체계 구축

제2민항 체제 출범에 따라 조종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한항공은 1989년 1월 제주 제동훈련비행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 조종사 양성 기관인 '기초비행훈련원'을 개원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종사 확보를 위해 자체 조종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89년 개원 후 매년 우수한 민간 조종사를 양성했으며, 2019년 3월까지 1,403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다.



1989. 9. 28 제주 기초비행훈련원을 방문, 교육 중인 제1기생들을 격려하는 조중훈 회장



1995. 1. 23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서울-베이징 취항 기념 행사

1990.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을 넘어 세계로

굳게 닫혀 있던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을 열기 위해 88서울올림픽 이후 소련과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 개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1990년 4월 1일 모스크바에 정기 노선을 개설하고, 1990년 9월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에 전세기를 본격적으로 운항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와 함께 정기 노선 개설 노력을 기울여 1994년 12월에 베이징을 시작으로 텐진, 칭다오, 선양 등 중국 4개 도시에 한꺼번에 취항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 1990. 4. 2 시드니 취항 ↓ 1992. 10. 25 서울-상파울루 정기 여객 노선 개설

1993. 대양주와 남미, 아프리카 진출, 5대양 6대주 노선망 완성

1989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세계일주 노선망을 완성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000년대에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1990년 4월 서울-시드니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해 대양주에, 1992년 10월에는 상파울루 노선을 개설해 남미에 진출했다. 이어 1993년 10월 카이로 노선을 개설해 아프리카에 진출함으로써 5대양 6대주를 취항하는 세계일주 노선망을 완성했다.

UH-60, CH-53 등 미군용기 창정비



1991. 창정비에서 민항기 부품 개발까지, 항공우주 사업의 성장

군용 헬기와 전투기 국산화로 항공우주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대한항공은 미군기와 국군기의 창정비로 보폭을 넓혔다. UH-60 중형 헬기 생산 주 계약자로 선정돼 1991년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며, 11월에는 다목적 경항공기인 '창공 91'을 독자 개발해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본격적인 완제기 설계개발 시대를 열었다. 한편 1991년 4월 보잉사와 B777 항공기 부품의 공동 설계 개발 계약과 함께 1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 1991. 11. 25 창공-91호 시험 비행 ↓ 1987 보잉사 납품용 B747-400 항공기 날개 부품 제작



↑ 1998 아시아 최초로 머큐리상 수상 ↓ 머큐리상을 받은 대한항공 비빔밥

1992. '항공 여행의 꽃' 기내식 사업의 성장

'항공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기내식 서비스는 고객들의 여정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내 서비스로 자리 잡은 기내식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 케이터링센터를 증축해 대량 생산과 품질 고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국적 항공사로서 한식 메뉴 기내식화를 선도했으며, 1992년 선보인 비빔밥은 1998년 2월 아시아 최초로 최우수 기내식에 주어지는 '머큐리(MERCURY)' 상을 수상했다.



김포 케이터링센터

1995. 3. 24 100번째 항공기 B747-400 도입



1995. 보유 항공기 100대 돌파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재를 도입하고 노선을 개척해온 대한항공은 1995년 3월 24일 B747-400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창립 26년 만에 항공기 100대를 보유하게 됐다.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에 이어 3번째로 1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가 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신형 항공기를 도입해 항공기 평균 연령을 세계 평균인 11년보다 낮은 8년으로 낮춤으로써 안전 운항과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6 B747-400F 화물전용기 도입

1996. 화물 사업의 고속 성장과 글로벌 화물 노선망 구축

1996년 국제 항공화물 수송 분야에서 루프트한자항공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1970년대 초 B707 화물기 1대로 시작된 화물 사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25년 만에 세계 2위에 오른 것은 세계 민간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결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에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성장을 지속해 대한항공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주었다.



1997. 5. 28 대한항공 김포 OC빌딩 준공 기념식

1997. 복합 항공기지 탄생과 OC빌딩 이전

복합 항공기지 건립은 회사의 모든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1987년부터 추진했다. 서소문 사옥의 현장 지원 기능과 김포공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운항, 객실, 지원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다. 1997년 5월 준공한 복합 항공기지는 OC(Operation Center)빌딩으로 명명했으며, 김포공항 램프와 활주도로 이어지는 남서쪽으로 'ㄷ'자형의 건물 중심부에 초대형 격납고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합 건물이었다.



김포 OC빌딩 내 격납고 전경



↑ 1998. 2. 24 델타항공 수석 부사장 방문 ↓ 1999. 5. 20 노사화합을 통한 안전운항 결의대회

1999. 조양호 회장 취임과 안전 운항 체제 구축

연이은 사고로 인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9년 4월 조양호 회장, 심이택 사장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고 '인명 중시의 과학적 경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사적인 안전 운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델타 컨설팅의 안전 대책을 강화한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안전이 특정 부문에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미래와 직결돼 있음을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안전 운항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운항 의지를 결집했다.





↑ 2000. 6. 22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결성 ↓ 2004. 10. 11 스카이팀 GB(Governing Board) 미팅

2000. 세계 최초 '고객 중심'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출범

2000년 6월 22일 다국적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SkyTeam)이 공식 출범했다. 대한항공과 미국의 델타항공,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중남미의 아에로멕시코 등 4개 항공사가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Global Alliance) 출범식을 가졌다. 조양호 회장의 주도로 스카이팀이 탄생함으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네트워크 동맹에 합류해 선진 항공사들과 대등한 고객 서비스 기반을 갖추었다.





2000. 8. 28 통제센터 개원

2000. 실시간 안전 운항을 위한 통제센터 가동

대한항공은 델타 컨설팅으로 국제 표준에 걸맞은 안전 기준을 정립한 다음 최우선 가치를 안전 운항에 두고 안전 체제 선진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00년 8월 개원한 통제센터는 24시간 항공기 운항 지원과 비행 감시 체계를 갖춰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운항 총괄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통제센터 가동으로 조종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운항 안전성을 한층 높임으로써 안전 운항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



200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경

2001. 동북아 물류 허브, 인천국제공항 시대 개막

8년 6개월의 건설 기간과 5조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을 향한 인천 허브 시대가 개막됐다. 대한항공은 2001년 3월 항공기 12대를 주기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과 인천 케이터링센터, 2002년 7월에는 정비 격납고를 준공해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며 글로벌 항공사로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



↑ 2004. 3. 2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선포 ↓ 2004. 3. 2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 공개

2004. Excellence in Flight,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 도약 선언

2004년 3월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해 향후 세계 10대 항공사 반열에 오를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동시에 'Excellence In Flight'라는 미션을 통해 미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최상의 운영 체제(Operational Excellence)', '고객감동과 가치창출(Service Excellence)', '변화 지향적 기업문화(Innovative Excellence)'를 실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었다.



2004. 3. 2 창립 기념식에서 선보인 역대 승무원 유니폼 행사

· 대한항공 50년, 역사적 순간 50 ·



2005. 8. 18 화물 수송 세계 1위 기념 사은 행사

2004. 국제 항공화물 수송 세계 1위 달성

2004년 국제 항공화물 수송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1971년 화물기 1대에 주력 수출품 가발을 싣고 날아오른 이후, 2001년에는 세계 최초의 항공화물 동맹체인 '스카이팀 카고'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 최고의 화물전용기와 탁월한 품질의 운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킨 집념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후 2009년까지 6년 연속 IATA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우리나라 물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5. New CI 도입과 신유니폼 론칭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새로운 CI를 도입했다. 우리 고유의 한복과 도자기에서 이끌어낸 청자색을 기본으로 대한항공의 자부심을 유지하면서 젊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어 2005년 3월에는 11번째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명품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으며, 현재까지 대한항공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다.

2005. 전 좌석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AVOD) 설치



2005. 객실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함께 객실 명품화로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했다. 2005년 8월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와 좌석을 선보인 이후 2011년까지 6년여에 걸쳐 모든 중대형 항공기에 차세대 명품 좌석과 주문형 엔터테인먼트(Audio Video On Demand, AVOD)를 설치했다. 기내 공간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항공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2008. 6. 15 진에어 브랜드 론칭 행사

2008. 프리미엄 실용 항공사, 진에어 출범

2000년대 들어 저비용 항공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항공운송업의 판도 변화를 이끌었다. 대한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모델을 만들어 2008년 1월 진에어를 설립했다. 그해 7월 17일 B737-800 항공기로 김포-제주 노선 첫 운항에 들어간 진에어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세련된 저비용 항공사로서 고객에게 다가갔다.



↑ 2008. 8. 27 나보이에서 열린 인천-나보이 화물기 취항 행사 ↓ 2008. 8. 27 나보이공항 운영계획 청취

2008. 중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 나보이 프로젝트

2007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공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나보이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화물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아시아 물류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08년 8월 인천-나보이-밀라노 구간 화물 항공편 운항을 개시하며 나보이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고, 2009년 1월에는 나보이 국제공항 위탁경영을 시작하는 등 나보이를 거점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 2008. 2 루브르박물관 한국어 안내 서비스 시행 ↓ 2009. 12 대영박물관 한국어 안내 서비스 시행

2008. 글로벌 문화 후원

2008년 2월,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작품 해설에 한국어가 7번째 언어로 추가된 것이다. 이후 영국 대영박물관,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으로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확대됐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적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문화체육부 장관의 감사패를 받았다.



2010. 고객 중심 서비스로 'Service Excellence' 구현

대한항공은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서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0년대 들어 KAL 프리미엄 어라이벌 샤워 서비스와 한식정찬 서비스, 유아용 시트 및 Harness 무상 대여 서비스, 반려동물을 위한 스카이펫츠 서비스, 겨울 외투를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 등 항상 고객 입장에서 귀 기울이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Service Excellence'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항공사', '동북아 No.1 항공사', '중국인이 사랑하는 외국 항공사'로 선정됐다.



← 퍼스트 클래스 한식정찬 서비스 → 플라잉맘 서비스
 ← 유아차 무료 대여 서비스 → 한가족 서비스
 ← 코트룸 서비스 → 반려동물 서비스 스카이펫츠



↑ A380 기내 면세품 전시공간 ↓ A380 기내 칵테일 바인 셀레스티얼 바

2011. 차세대 항공기 A380 도입과 기재 혁신 가속화

2011년 6월 세계 6번째, 동북아 지역 최초로 '하늘 위의 호텔' A380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A380 항공기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의 대표 항공기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B747-8i, 2017년 2월 '꿈의 항공기(Dreamliner)'로 불리는 B787-9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한발 앞선 차세대 항공기의 적시 투입으로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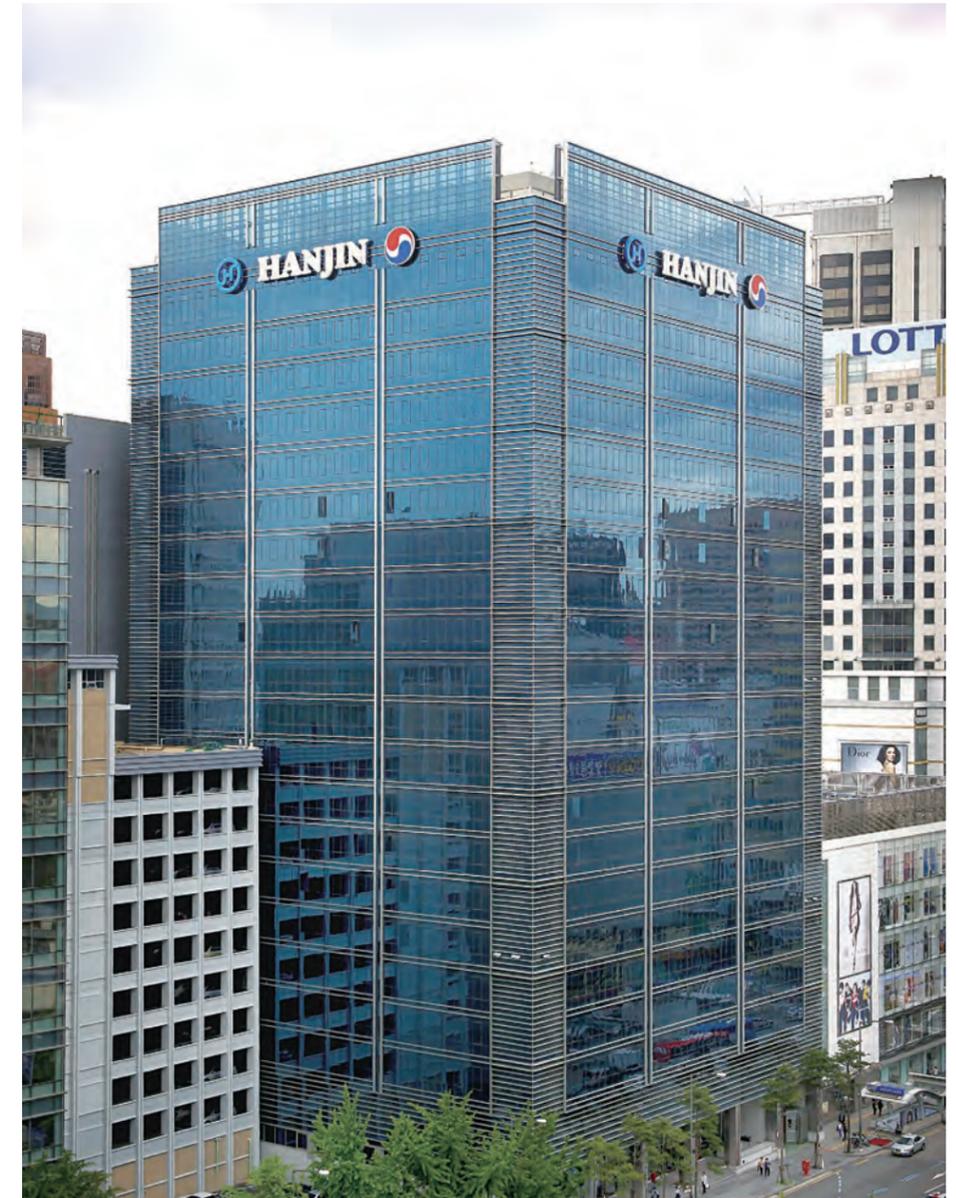
2017. 2. 27 꿈의 항공기 B787-9 공개 행사



2012. 3. 2 ERP 시스템 구축 기념식

2012. 세계 항공사상 최초 통합 ERP 시스템 구축

2012년 3월, 세계 항공업계 최초로 재무, 회계에서부터 기내식과 정비에 이르기까지 항공 업무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준비 작업부터 총 10년에 걸친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은 900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업무 기준과 프로세스를 모두 바꾼 대작업이었다. 항공업계 최초로 통합 ERP 시스템을 성공리에 구축한 것은 조양호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3. 8. 1 지주회사 한진칼 설립

2013.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진칼 설립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 항공사라는 확실한 목표 아래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2013년 8월 지주회사 한진칼을 설립함으로써 항공 사업에 집중하는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했다.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계열사에 대한 경영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회사들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발전시켜 나갔다.

2013. 11. 12 사단 정찰용 무인기



↑ 2013. 11. 12 사단 정찰용 무인기 초도 비행 공개 행사 ↓ 2019. 8 500MD 무인헬기 시험 비행 성공

2013.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무인기 개발

“무인 항공기야말로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이며, 우리 손으로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라는 조양호 회장의 뜻에 따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항공기 개발을 추진했다. 2014년 11월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DUAS), 2015년 12월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MUAV), 2017년 7월에는 틸트로터 무인기(KUS-TR) 개발을 차례로 성공 시켰다. 2019년 8월에는 500MD 무인헬기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 2016. 6. 8 안전 엔진테스트셀(ETC) 개소식 ↓ 운북 운항훈련센터 브리핑

2015.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항공사

설립 이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던 대한항공은 2008년 안전관리 시스템(SMS), 2009년 10월 세이프넷(SafeNet)을 구축해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안전 부문에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1990년대 후반 연이은 사고로 보험 갱신조차 어렵던 항공사에서 보험 요율이 가장 낮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거듭났다.



운북 운항훈련센터에 설치된 시뮬레이터

2017. 6. 23 LA 월셔그랜드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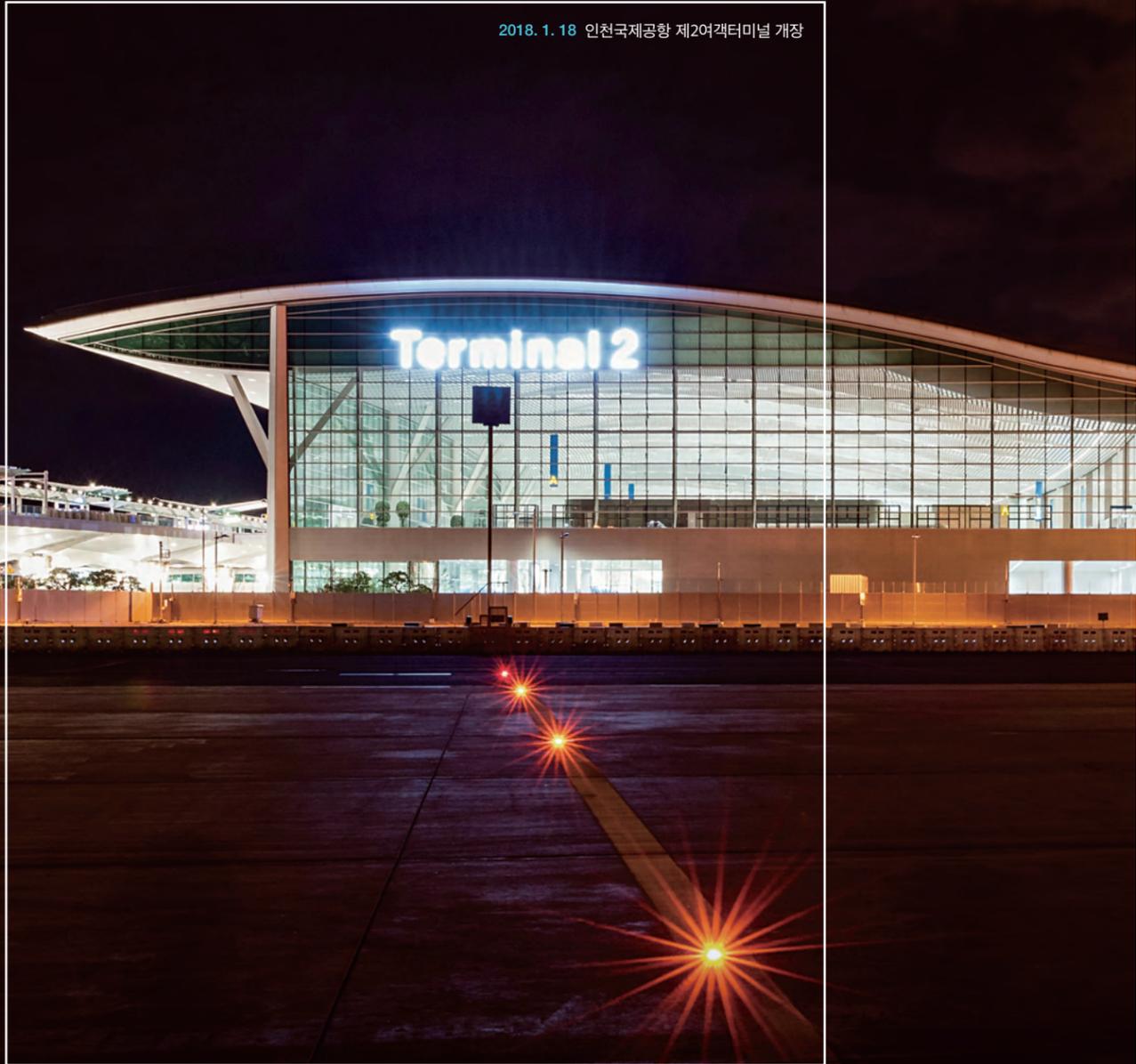
2017. LA 랜드마크 월셔그랜드센터 개관

2017년 6월 개관한 월셔그랜드센터는 1989년 한진그룹에 인수된 지 28년 만에 호텔과 오피스,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의 최첨단 복합 건물로 탈바꿈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 73층 규모, 높이 335m의 월셔그랜드센터는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월셔그랜드센터 개관은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현지 교민들에게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 2014. 9. 23 월셔그랜드센터 운영 협약식 ↓ 2017. 6. 23 월셔그랜드센터 초석에 사인을 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

2018. 1. 1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 프리미엄 체크인 라운지 ↓ 마일러 클럽 라운지

201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

대한항공은 공항 서비스 차별화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비롯해 스카이팀 항공사 간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자 2018년 1월 이곳으로 이전해 프리미엄 체크인 라운지 등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했다.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일류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2018. 1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를 래핑한 A330-200 항공기



↑ 2018. 1. 13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 2017. 12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이벤트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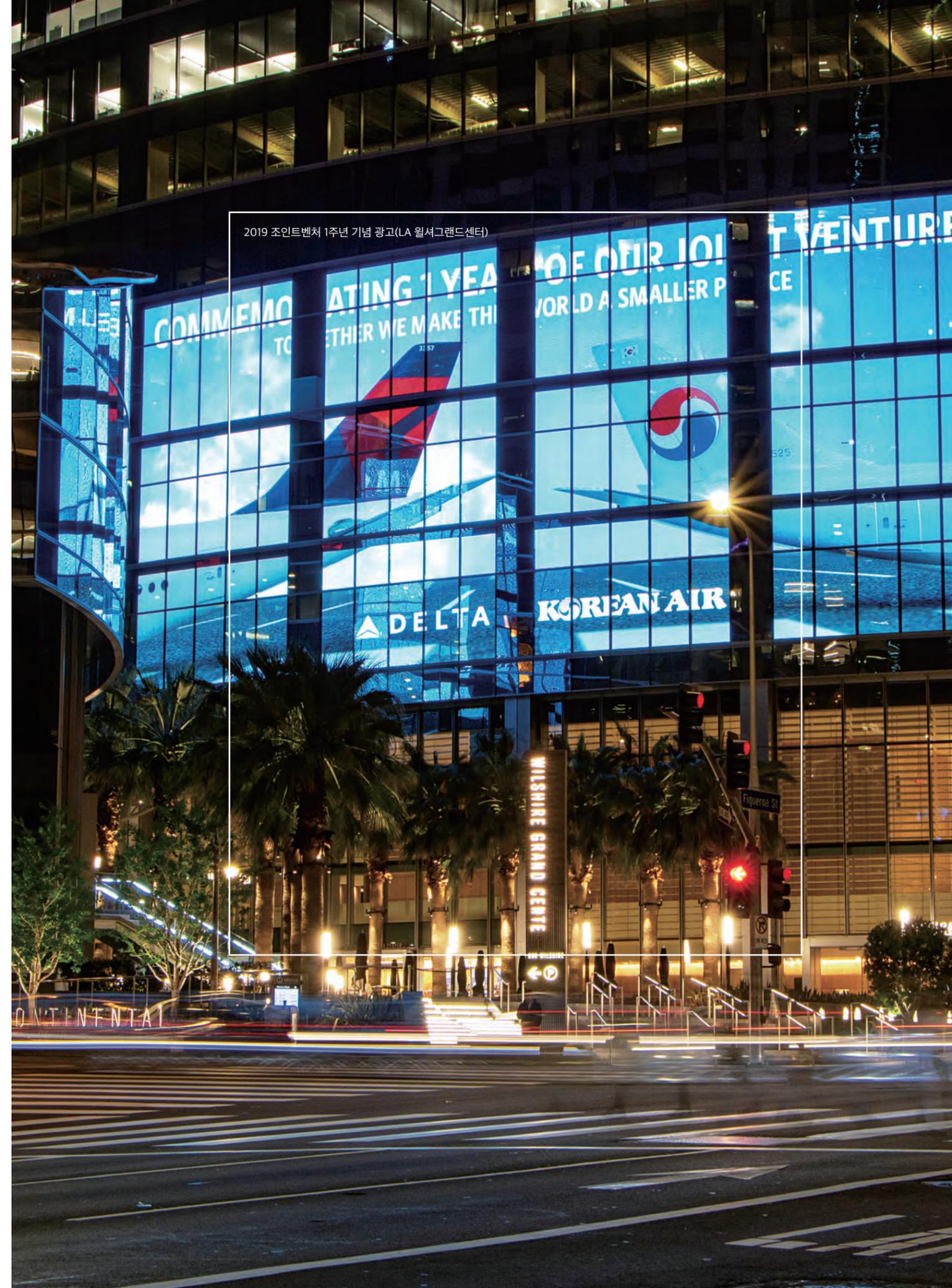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올림픽으로 대한항공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봉사'라는 소명 의식으로 올림픽 유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 유치 이후 2015년 공식 후원 협약을 맺고 1,000억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쳤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제 업무, 마케팅, 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올림픽 유치에서부터 성공적 개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



↑ 2017. 6. 23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설립 본계약 체결 ↓ 2018. 11. 8 델타항공 직원 초청 행사 - 조인트벤처 데이

2018.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정

2017년 3월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해 6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11월 미국 교통부의 최종 승인, 2018년 3월 우리 정부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2018년 5월 1일 양사의 조인트벤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조인트벤처 시행으로 항공 노선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과 영업 활동, 재무적 성과까지 공유하는 '하나의 항공사'와 같은 협력 단계를 통해 100년 항공사로서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2019 조인트벤처 1주년 기념 광고(LA 윌셔그랜드센터)



2019. 7. 19 클라우드 커맨드센터 오픈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대한항공

2012년 통합 ERP를 시작으로 2014년 9월 신여객 시스템, 2019년 4월 신화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IT 혁신으로 항공운송 사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했다. 2018년 11월에는 전 세계 대형 항공사 최초로 회사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발표하고, 3년에 걸쳐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디지털 변혁 시대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글로벌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14 2019. 3. 창립 50주년 기념식

2019.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1969년 3월, 8대의 항공기로 출범한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민항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 왔다. '수송을 통해 국가·사회·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수송보국의 창업정신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적극적인 노선 개척과 서비스 혁신, 끊임없는 변화와 투자를 바탕으로 2019년 현재 전 세계 44개국 124개 도시를 누비는 글로벌 명품 항공사로 거듭났다. 이제 대한항공은 민족의 날개, 세계의 날개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고객의 날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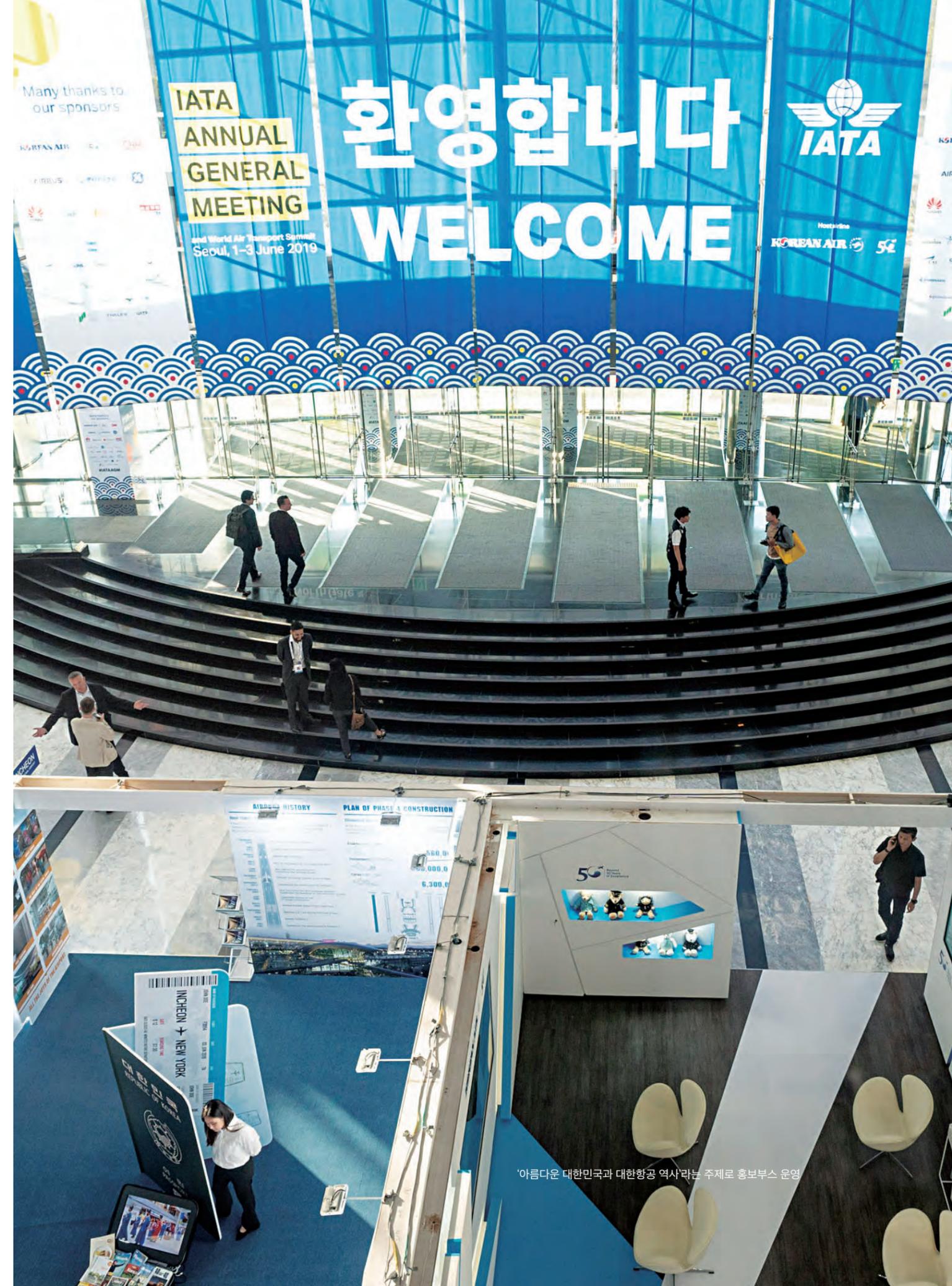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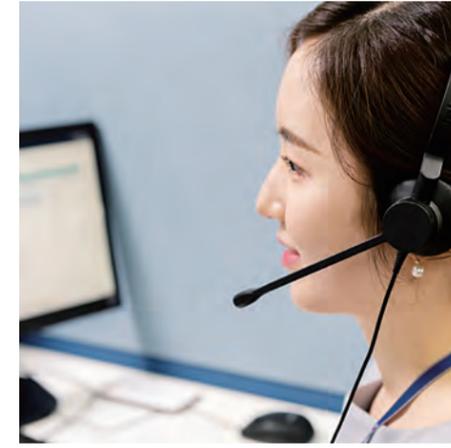
2019. 6. 1 서울에서 개최된 제75회 IATA 연차총회

2019. 항공업계의 UN, IATA 연차총회 주관 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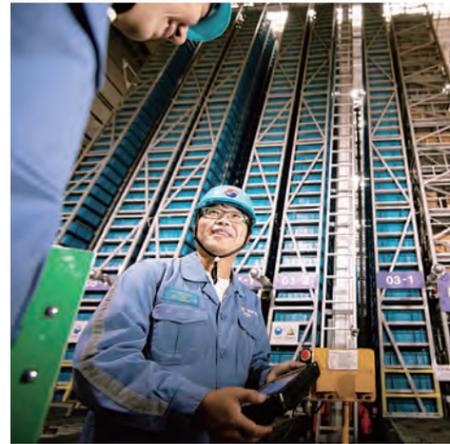
항공업계의 UN회이라 불리는 제75회 IATA 연차총회가 2019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한항공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조양호 회장이 IATA 가입 30주년, 창립 50주년을 빛내기 위해 유치한 것으로, 120개국 290여 개 항공사에서 관계자 1,100여 명과 기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태 회장이 의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한 IATA 연차총회는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행사로 평가받았다.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대한항공 역사'라는 주제로 홍보부스 운영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대한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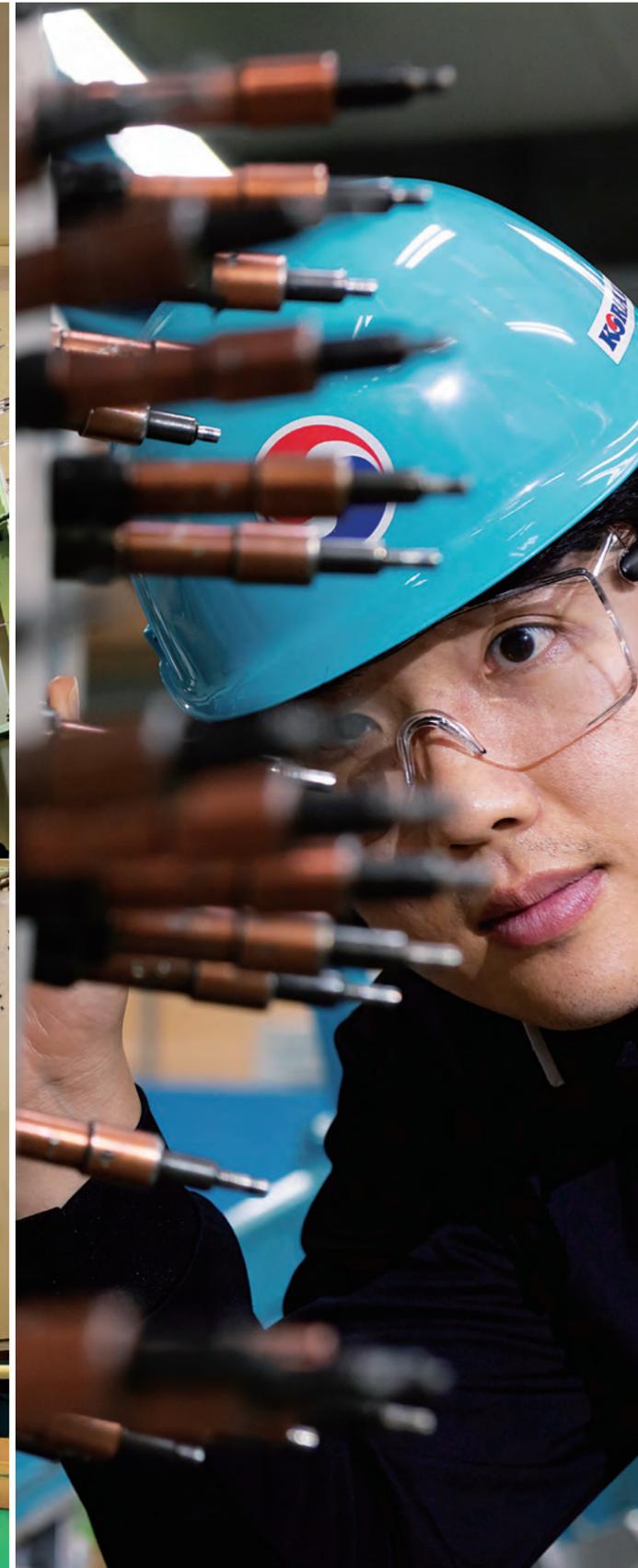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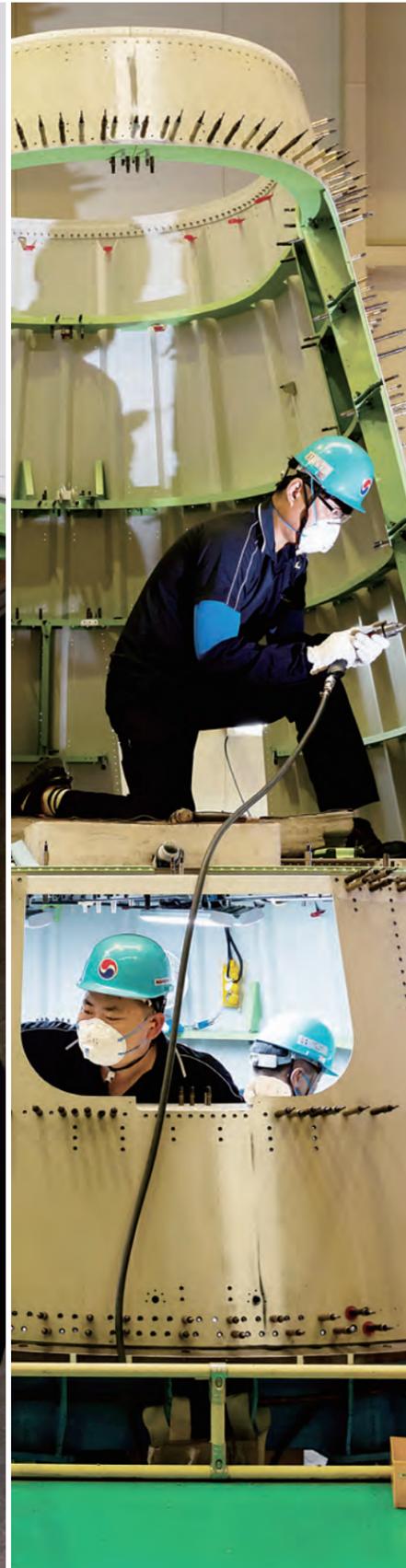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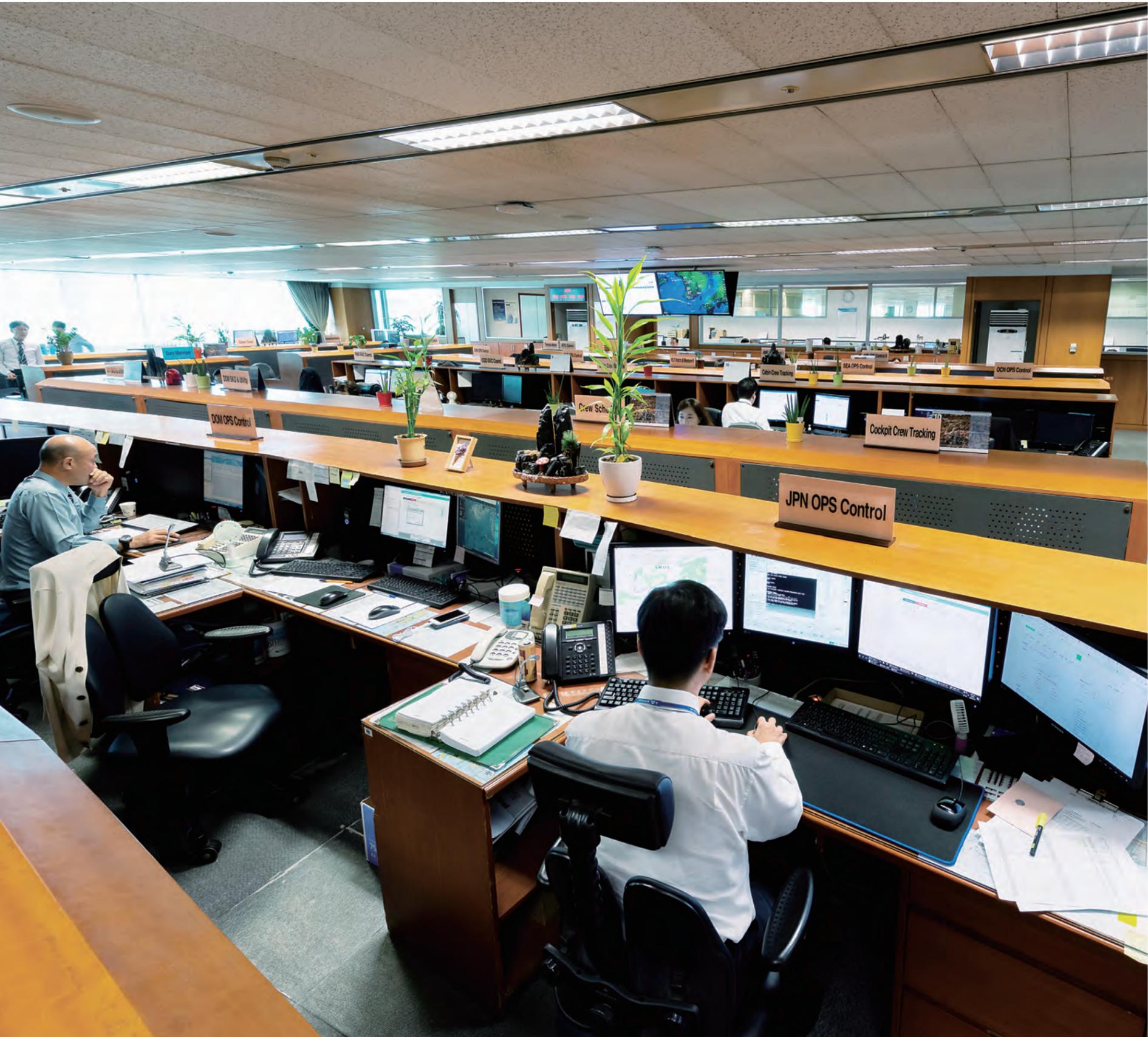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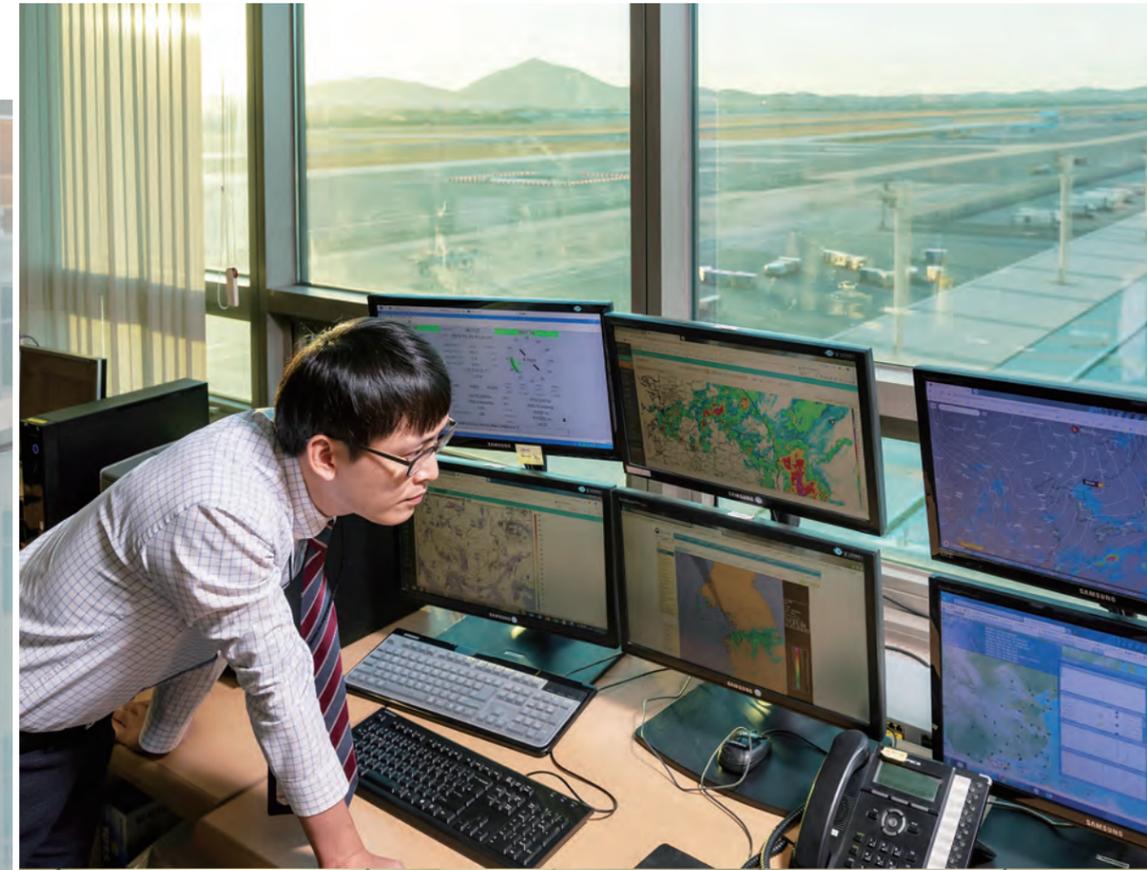


DO NOT HANDLE
COMBINER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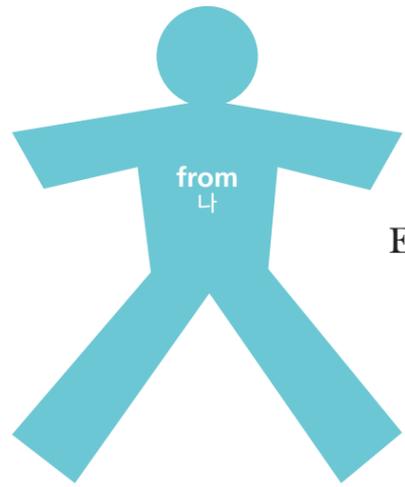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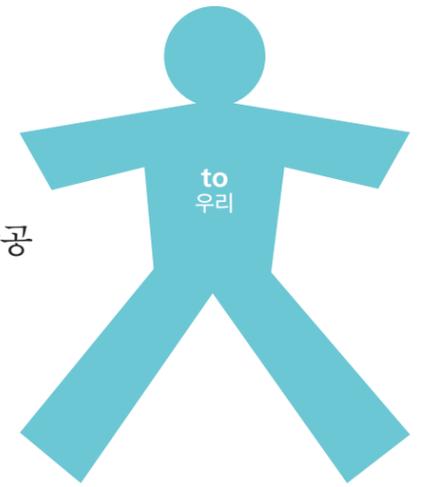




Excellence in Flight Excellence in Community

나 그리고 우리

사랑의 날개 대한항공





나·눔·지·기·









꿈·나·눔·지·기·







문·화·지·기·





환·경·지·기·





스·포·츠·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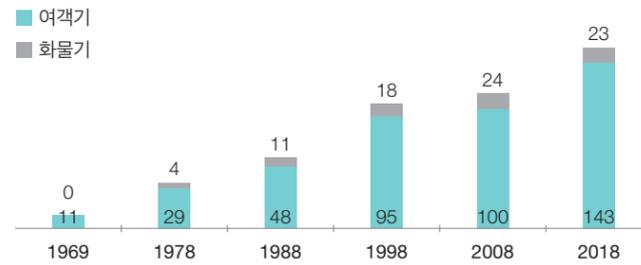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대한항공 50년

보유 항공기

16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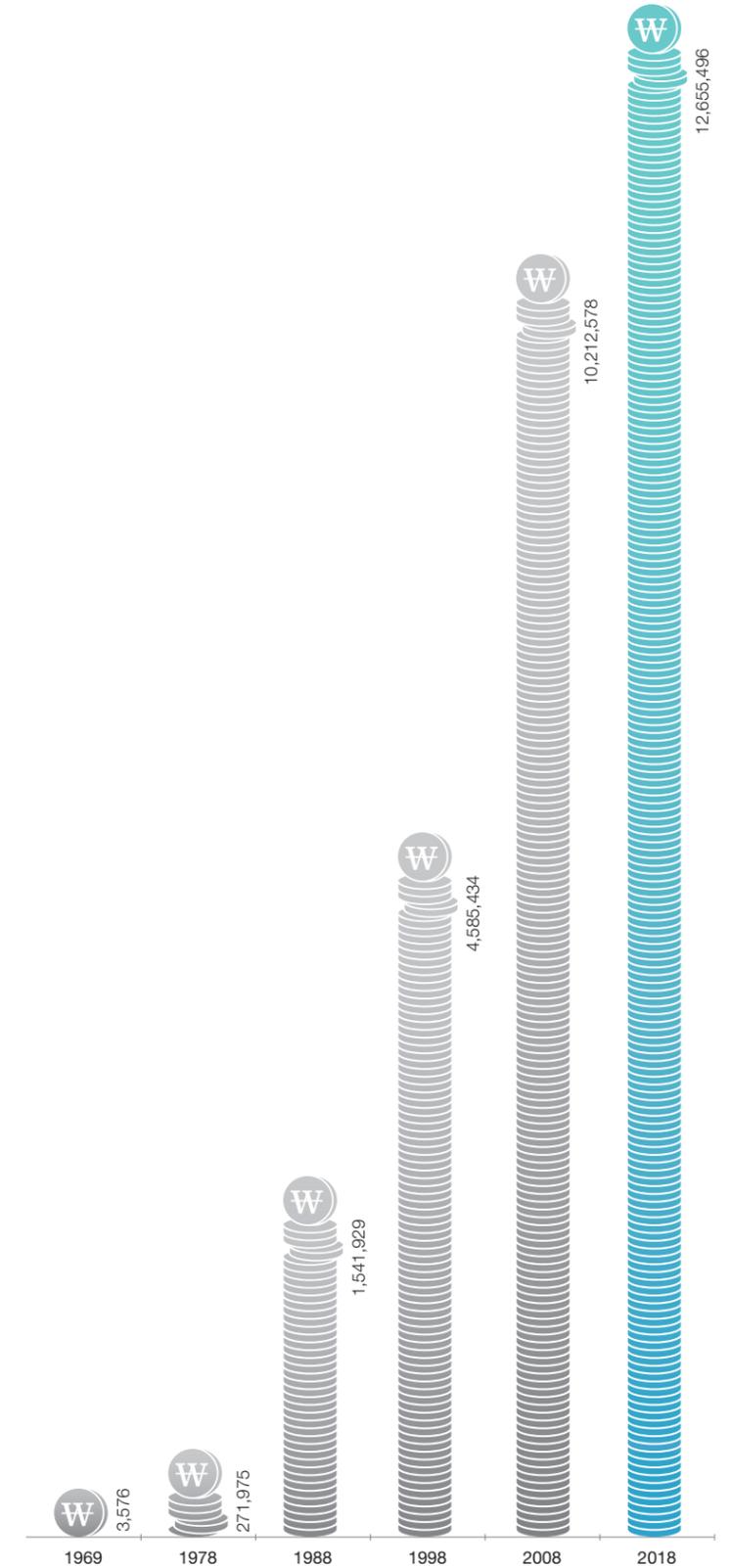
1969년 3월 제트기 1대와 프로펠러기 7대로 시작한 대한항공은 2018년 말 기준 B777 42대, B787-9 10대, B747-8i 10대, A380 10대 등 166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전세계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매출액

12조 6555억원

연간 매출은 1969년 36억 원에서 2018년 12조 6,555억 원으로 3,500배 이상 성장했고, 자산은 57억 원에서 24조 3,733억 원으로 4,280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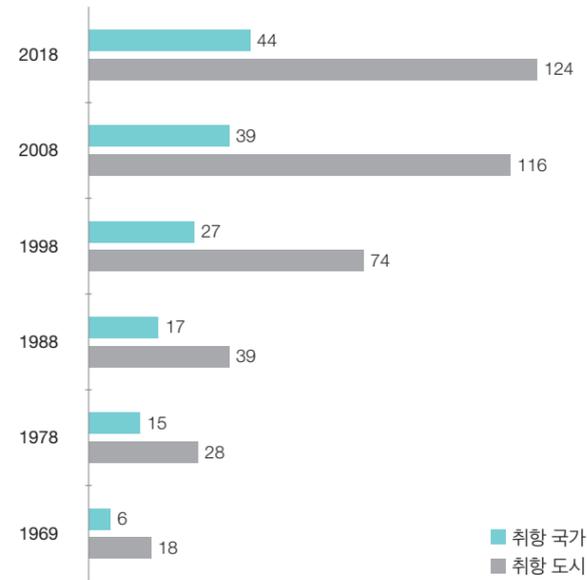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취항 국가, 취항 도시

44개국 124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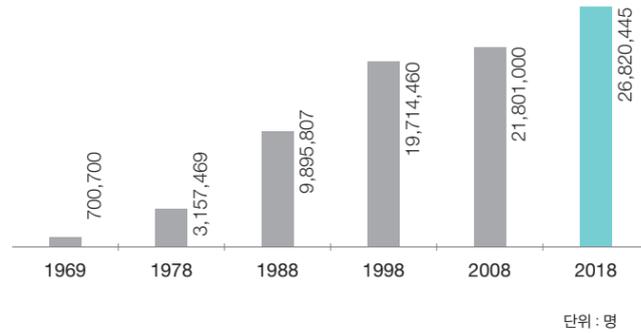
1969년 3월 출범 당시 대한항공의 국제선 노선은 서울-도쿄, 서울-오사카, 부산-후쿠오카 등 3개였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선을 포함, 전 세계 44개국 124개 도시에 달한다.



누적 여객 수송

7억 1626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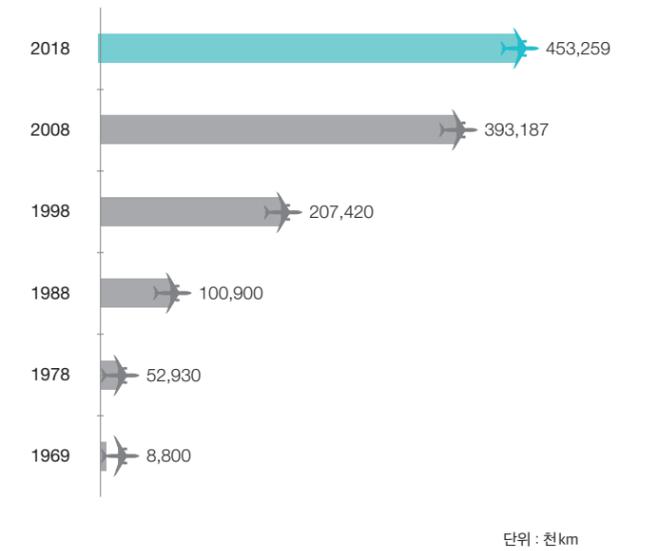
대한항공의 2018년 연간 수송 인원은 2,682만 명으로 민영화 초기 연간 수송 인원인 70만 명의 38배에 달한다. 대한항공이 지난 50년간 수송한 승객은 총 7억 1,626만 명으로 이는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3번 이상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은 수치다.



누적 비행 거리

100억 3382만 9000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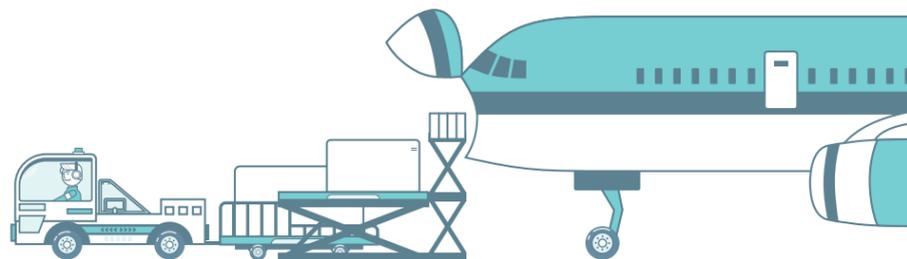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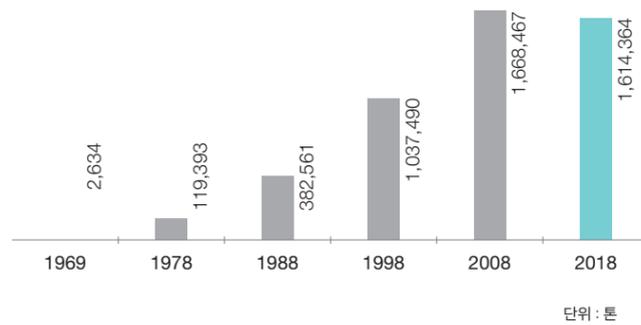
대한항공은 지난 50년 하늘 길을 100억 3,382만 9,000km 비행했다. 이는 둘레 약 4만 km의 지구를 25만 바퀴 돈 수치이다. 또한 지구에서 약 38만 km의 떨어진 달을 1만 3,200번 왕복한 것과 같다.



누적 화물 수송

4294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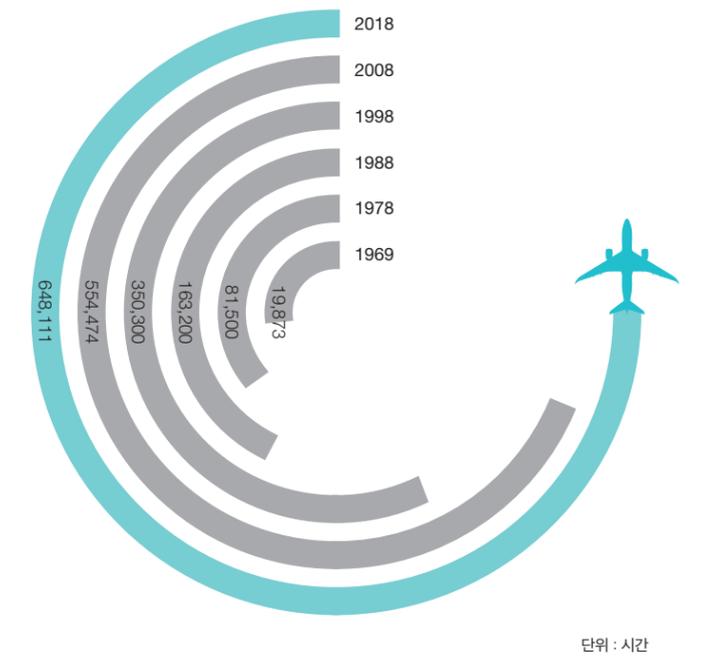
대한항공이 지난 50년간 실어 나른 화물은 총 4,294만 톤이다. 이는 8톤 트럭 기준으로 536만 대 분량에 달하며,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최대 24톤을 적재했을 때 169만 개에 달하는 양이다.



연간 비행 시간

64만 8111 시간

1969년 출범 당시 연간 1만 9,874 시간에서 2018년 말 기준 64만 8,111 시간을 운항해 연간 비행 시간이 33배 증가했다.



대한항공 5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 총괄	우기홍 부사장
편찬위원	석태수 부회장, 이수근 부사장, 조병택 전무, 신무철 전무, 유종석 전무, 노삼석 전무, 김원규 전무, 김인화 전무, 이상기 전무, 하은용 전무, 정지영 전무, 장성현 전무, 강두석 상무, 이진호 상무, 장현주 상무
실무위원장	최두환 상무보
실무위원	김철호 상무, 김태준 상무, 박희돈 상무, 이상범 상무, 이석우 상무, 최덕진 상무, 남기송 상무, 장영재 상무, 조모란 상무, 곽주호 상무보, 변봉섭 상무보, 이규석 상무보, 조영 상무보, 최우중 상무보, 하성찬 상무보, 박태훈 상무보, 김우현 상무보, 김준환 상무보
자문 및 감수	유재천 前 상지대학교 총장 심이택, 이중희, 지창훈, 이태원, 강영식, 서용원, 최경호, 이광사, 박용순, 김철우 (前 대한항공 임원)
사사편찬 TF팀	한경화 팀장, 김용수 차장, 박정은 과장, 김민희 과장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제작	(주)사사연(02-569-4409) www.sasayeon.com
원고 집필	장형규, 우윤정, 박현숙
기획 총괄	이언배
기획 진행	송미경, 박경아, 김민환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02-514-5164) 아트 디렉터 이인기 디자인 임동준, 안소연, 이원경
사진 촬영	신한호, 손초원, 신보라
인쇄 제작	넥스프레스

대한항공 50년사
1969—2019

인쇄 2019년 11월

발행 2019년 11월

발행인 조원태

발행처 (주)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www.koreanair.com

비매품